

2002년도 안전협회 기관평가 시상



안전협회는 2월 14일 포항에서 2003년 1/4분기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 각 사업에 대한 기관평가에 따른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대전충남지회가 종합 경영대상을 차지하였고, 수원지회, 대구지회가 각각 금상, 은상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에 비해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제주지회가 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채로운 시상상을 통해, 한차원 높은 서비스로 2003년도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이홍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합심 노력한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 한해는 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는데 우리 안전협회가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협회 임직원 POSCO 방문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지회 사무국장 등 임직원은 지난 2월 14일 우리나라의 제철산업을 선진국 수준의 대열에 올려놓은 POSCO를 방문하였다.

먼저 POSCO의 홍보관에서 철강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아보고, 압연공장과 환경센터를 방문하였다. 그 중 환경센터는 POSCO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곳으로 POSCO의 전체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재 POSCO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추

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실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대산업개발(주) STOP 기법 적용을 위한 교육 실시



현대산업개발(주)은 건설업체로 선진외국의 안전기법인 DuPont의 STOP기법 적용을 위해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STOP기법 관리자 과정”에 사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1월 6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3차에 걸쳐 총 9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STOP 기법 도입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한도정공(주) 무재해 10배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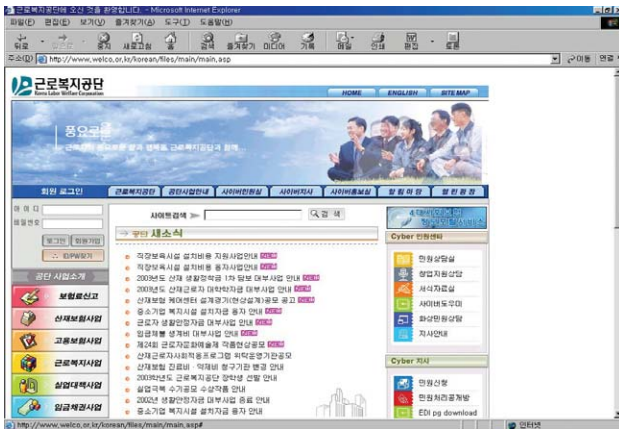


안전협회 구미지회 회원사인 한도정공(주)(서정식 대표이사)는 지난 2월 4일 무재해 10배를 달성하고 이에 대한 인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김인영 산업안전과장을 비롯해 안전협회 구미지회 이운호 사무국장, 안전공단 구미지도원 하정호 원장 등 의빈과 한도정공(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한도정공(주)는 TV 후레임을 주로 생산하는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

어 무재해를 위해 안전활동을 매진한 결과 무재해 10배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곧 무재해 20배의 시작이며, 반드시 그 이상의 무재해를 달성한다는 각오를 보였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인터넷으로 처리



근로복지공단은 2003.2.13(목)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200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매년 법정 납부기한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www.welco.or.kr)를 방문하여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사이버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보험료신고』메뉴를 선택한다.그 다음은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문의전화 1588-0075)

정기간행물 “안전가이드” 탄생



안전협회는 회원사,대행사 및 건설재해예방 등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의식 계몽차원에서 매월 정기적인 “안전가이드”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다.

건설부분과 일반제조부분으로 나누어 발간되는 “안전가이드”는 매월 계절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계몽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포스터와의 차별되는 부분은 크기가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포스터보

다 작게(450×623mm) 제작하였다.

지난 1월 시험적으로 사업장에 배포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안전가이드”는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사업장의 안전 길잡이로 만들 계획이다.(문의전화 860-7027)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마련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약해진 축대 붕괴로 인한 시민 안전위협과 저수지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이 예상되는 익사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시·도 재난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해빙기 및 중단된 공사장 안전대책을 논의한 후 각 시도에서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점검 대상은 폭설,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약화된 축대,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대규모 절·성토 공사장,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노후 건축물, 오랫동안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공사장 등으로 해빙기 붕괴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들이다.

아울러 저수지, 웅덩이, 하천 등의 얼음이 녹으면서 익사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위험지역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재난·재해 119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서울시의 각종 재난·재해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119로 신고만 하면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4시간 상시 기동반」이 출동, 사고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안전하고 살기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상시 관리체제를 운영키로 하여 119로 모든 재난·재해신고를 일원화하고 기동대기반을 편성, 신속한 응급처치 등 사고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또, 「24시간 상시 기동반」을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등에 주기적으로 순찰토록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 사전 사고예방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신고 부서가 각각 다르고 신고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지연 및 기피 경향이 많아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신고와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과로로 질병발생 “업무상 재해”

당뇨 등 지병이 있어도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의 고된 노동이 뇌경색증 발병의 한 원인이 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서태환판사)은 20일 격무로 뇌경색증이 발병했다며 택시기사 유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4시간 교대근무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규칙한 취침시간, 수면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 당뇨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